

승오스님의

### 경전읽기

#### 승만경 ②

〈승만경〉의 주제는 입승(一乘) 사상과 여래장 사상이다. 올바른 진리는 곧 대승(大乘)을 말하며, 대승은 곧 불승(佛乘)이니 여래에 귀의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수승한 귀의라고 〈승만경〉에서는 천명하고 있다. 승만부인은, 아육달이라는 커다란 연못으로부터 여덟 개의 큰 강이 흘러 나오듯, 대지에 의지하여 일체의 온갖 씨앗이 자라나듯이 대승에서도 성문(聲聞)과 연각(緣覺),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착한 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여래 즉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하고 또 불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승만부인은 여래장에 대해 이렇게 논하고 있다.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

배하면서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승만부인은 또 “여래의 법신이 번뇌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거기에 떠나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한다”고 설하고 있다. 구름 낀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어둠의 먹구름이 걸리면 태양은 다시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여래장이란 구름에 가리기도 하고, 구름을 헤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다.

부처님은 미망을 몰아내고 진리에 눈을 떠서 부처가 되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미망에 빠져있는 중생이었다. 그렇다면 미망에 빠져 있는 중생이라고 해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 즉 여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것

## 미망 벗으면 누구나 부처

### 몸 · 생명 · 재산 던져 진리 수호

명체는 태어나고 죽어 간다. 삶도 죽음도 여래장을 의지처(依止處)로 삼고 있다. 삶은 여러 감각기관이 생겨나는 일이고 죽음은 여러 감각기관이 소멸되는 일이다. 따라서 삶이 되었건 죽음이 되었건 그것은 세상의 표현에 불과하다. 여래장은 생하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는 절대존재(無爲法)의 기반이다. 동시에 미망의 세계존재(有爲法)에 대해서도 기반이 된다. 이런 여래장이 없으면 사람은 고통을 싫어하는 일도 없고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러면 우리의 미망은 소멸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깨달음을 추구하여 수행을 하는 일도 결국은 열매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승만경〉에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이 승만부인의 “오늘부터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이다. 곧 진리의 수호가 그것이다. 승만부인은 “몸과 생명과 재산을 던져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재산은 물론 몸과 목숨까지도 다 버려 진리를 지키겠다는 승만부인의 엄원은 경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강조되고 있다. 부처님과 승만부인의 마지막 대화가, “올바른 진리는 수호하고 나쁜 법에 빠진 사람들은 항복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수호, 올바른 도리의 천명, 그것을 위한 사된 견해를 쳐부수는 일, 그것은 곧 우리들의 열원이기도 하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곧 진리의 구현자이고, 또한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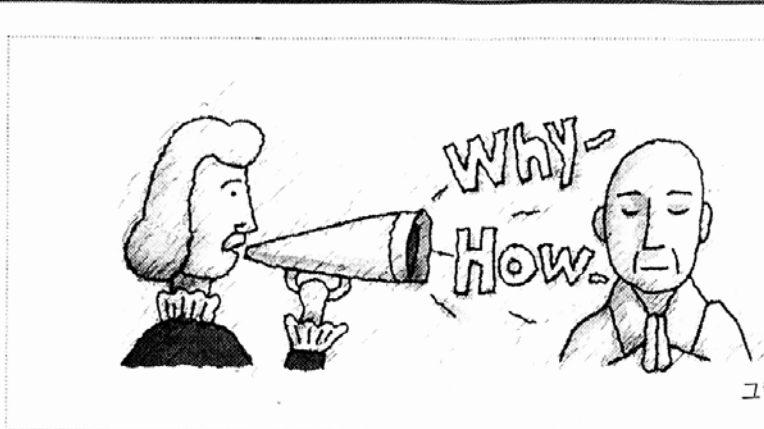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지행합일로 진여실상 보라

### 불교와 과학 <12>

#### 지혜 인식론

지동설을 주창한 코페르니쿠스부터 지구표면의 운동학과 천체의 운동학을 종합한 뉴턴에 이르는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을 일러 근대 과학의 혁명이라고 말한다. 이들 과학혁명의 선구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은 당시의 정신적 배경인 기독교와 어떻게 조화를 맞추는가 하는 문제였다. 갈릴레오와 교회의 갈등을 이미 알고 있었던 뉴턴 역시 기독교의 세계관과 천체의 운동구조를 모순 없이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신의 의지가 천체운동에 잠재적인 힘으로 밑에 깔려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기독교적 신의 의지는 천체운동의 원인이 되어야 했고 그 원인이 뉴턴의 과제였다.

쉽게 이야기해서 행성들이 ‘왜(why)’ 그렇게, 그리고 반드시 꼭 그렇게만 운동하는가를 묻는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뉴턴이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원초적으로 답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인간이 신의 의지를 안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뉴턴은 이 질문의 원초적 불가능성을 논치 않았다. 그는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how)’ 천체가 그렇게 운동하는가를 결국 밝혔다. 그것은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이었다. 여기서 과학자와 형이상학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형이상학자는 대상 혹은 운동을 가져오게 한 그 무엇에 대한 근원적인 존재와 그로부터 파생된 이유를 묻는다. 반면에 과학자는 근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상의 운동에 대한 현상적인 구조를 묻고 그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를 다룬다.

결국 서구 근대 과학혁명은 인식론의 문제에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 인식론은 당시의 철학적 인식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당시 인식론은 보통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론적 인식론과 로크와 같은 경험론적 인식론으로 나누어 말해지고 있다. 이들 모두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였다. 데카르트 같은 합리론적 인식론자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힘을 이미 생득적으로 인간이 갖고 태어

나다는 생각이었고, 반면에 로크 같은 경험론적 인식론자들은 태어날 때 사람의 마음이 빈 칠판과 같아 그 위에 쓰여지는 대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졌다.

서구에서 합리론자들은 수학과 같은 형식과학을 일태시켰으며, 경험론자들은 물리학과 같은 경험과학의 기초를 다졌다. 당연히 이 두 진영 모두는 현상계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영역을 아뢰야식이라 하여, 진정한 실상(實相)의 지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계를 파악하는 자아의 유심(唯心)과 대상의 외부적 자극이 어떻게 감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사유(意識)의 과정은 중요하다. 유식의 과정은 서구 근대 인식론으로 말한다면 주관적 관념론과 비슷하다는 일본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구 인식론

과 중요한 차이가 내재되어 있다. 유식론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은 지식을 구하려는 인식의 경험론적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지(智)는 대상을 인식할 때, 사물의 실상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 인식을 말한다. 그리고 혜(慧)는 사(邪)된 것과 정(正)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뜻한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의 인식론은 서구의 지식 인식론과 달리 지혜 인식론이라고 말해도 좋다.

앞서 서구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을 구분하는 과학적 인식론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구분은 존재가 무엇이나는 형이상학적 존재론과 대상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지식 인식론의 차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의 인식론은 존재와 인식을 구분하는 서구과학과 달리 기본적으로 지식에 지식에 머물지 않고 연가(緣)에 머물지 않는 존재 혹은 실상에 기대

어 있는 인식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의 인식은 서구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왜’와 ‘어떻게’가 함께 대답되어야 할 난제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난제는 인식 주제와 인식 대상을 구분하는 서구 인식론에서는 난제일 수 있으나, 주제와 대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실상의 눈에서는 아주 자연스런 인식의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인식은 이성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인식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요지는 간단하다. 첫째 양명학에서도 자주 말하는 지행합일의 자세가 인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진여 실상의 세계가 따로 저 먼 하늘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주제 속에 있다는 점이다.

■ 최중덕 / 삼지대 교수 (jchoi@chiak.sangji.ac.kr)

## “연기법·무소유 정신 지구 살리는 열쇠”

### 지구촌 불교 / 네팔 환경대회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세계 종교계가 나섰다. 33개국 11개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난달 27일 네팔 카부만두의 인근 마을인 박타푸르에서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성스러운 선물’을 주제로 환경대회를 열고 성전을 선언했다. 박타푸르 마을 사람들이 공헌한 불교 의식과 초키 님마 린포체(Chokyi Nyima Rinpoche, 네팔 불교지도자)의 기조 강연에 이어 3일간 계속된 이 대회에서,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은 무분별한 벌목, 해양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등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지구를 보호하는 일에 종교의 차이를 넘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초키 님마 린포체는 기조 강연에서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에 충실한다면 이웃에 대한 무관심, 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욕망을 줄이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증득함으로써 서로를 괴롭히는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교 의식으로 진행된 환경대회 개막행사 모습.

### “자원절약·생태계 보호 나서자” 11개 종교 지도자 ‘성전’ 선언

자들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벌목을 막고, 사냥꾼의 표적이 되고 있는 몽골의 흰색 표범을 보호하는 것에서, 티베트의 라다크와 같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식량 및 물의 부족에 따른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26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지구상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환경과 천연 자원 기반이 놀라운 속도로 악화일로에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종교지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채택한 공동 선언에 따르면, 지구 환경을 특히 압박하는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로 광배해진 이기심과 무관심, 이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의 수행에서 삶의 모델을 가져온다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세계 종교계는 공동 관심과 동반자 정신 및 연대감에 입각해 종교간 협력을 긴급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은 이밖에도 지속적인 개발과 생물자원의 고갈, 가뭄과 사막화, 무분별한 삼림훼손 및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유독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세계야생기금재단의 플라우드 마틴 이사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와 기술에만 매달려 왔지만, 결국 인간의 생각과 삶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종교지도자들이 문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아주 작습니다.

##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임입니다.



### 주머니 속 대장경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지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령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조선 시대 선사 41인의 선사 모음집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황폐한 우리의 교육환경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선상전하유아득존'

101 - 교리 · 입문편

102 - 교리 · 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화편

501 - 문화 · 학술편

502 - 문화 · 학술편

###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 범수로 배우는 불교

###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 참선요지 (參禪要旨)

### 방편개시 (方便開示)

###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허공의 딸꼭질

### 불성이란 무엇인가

###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호른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시이 후라도 공저, 김봉근 편역, 86 변형 249쪽 / 값 5500원

이재열 지음, 86 변형 176쪽 / 값 4500원

조필 스님 편역, 86 변형 176쪽 / 값 4000원

해능 스님 역음, 86 변형 320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86 변형 278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86 변형 278쪽 / 값 5500원

한영조 지음, 86 변형 336쪽 / 값 6000원

이중진 지음, 86 변형 282쪽 / 값 5000원

전치수 지음, 86 변형 196쪽 / 값 4500원

김종서 지음, 86 변형 182쪽 / 값 4500원